

## 부활절 제4주 (나해) 거룩한 독서

### Lectio Divina

#### ■ 내적 침묵기도 | Centering Prayer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오시도록 청합니다.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작아지고 주님의 활동 하심이 커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되고, 그분의 이끄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영적 자유와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 ①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를 펴고 자세를 편하게 잡습니다.
- ②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 ③ 잡념이 생길 때에는 사로잡히지 말고 물 흐르듯 흘려보냅니다. 이때 거룩한 단어(예: 하나님, 주님, 사랑, 평화, 예수 등)를 부드럽게 떠올림으로써 기도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 ④ 적어도 20분간 침묵으로 하나님 현존 앞에 머물습니다.
- ⑤ 기도가 끝나면 2-3분 동안 기도 속에서 천천히 나옵니다.

■ **떼제 찬양**  10분  
■ **읽기** | Lectio  20분

#### 사도행전 | 행 4:5-12

-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응송 | 시 23**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서신 | 요일 3:16-24**

-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 복음 | 요 10:11-18

-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12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 묵상 | Meditatio 20분

■ 기도 | Oratio 10분

■ 나눔 | 10분

■ 관상 | Contemplatio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지향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합니다.

## 성서일과 주제 :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 사도행전

지금 베드로는 병자를 낫게 해 주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행 4:2)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이유로 요한과 함께 체포되어 공회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서조차 나면서 못 견뎠던 이를 고친 사건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행 4:9)이라고 소개하며,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행 4:10) 라고 선포한다.

### 서신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라고 말하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일 3:23) 라고 말한다. 여기 주님의 양떼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들이 나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 복음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목자들은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주님은 당신에 대해 "나는 선한 목자라"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당신 스스로를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로 여기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 당신의 죽음도 양을 위해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다는 것이다.

### 응 송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a)라고 노래한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